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920호
2023. 8. 18

- 건설현장 기술인력 부족 실태와 영향
- 2022년 ENR 225대 설계기업 매출 동향 분석
- 2022년 건설업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현황

한국건설산업연구원

Construction & Economy Research Institute of Kor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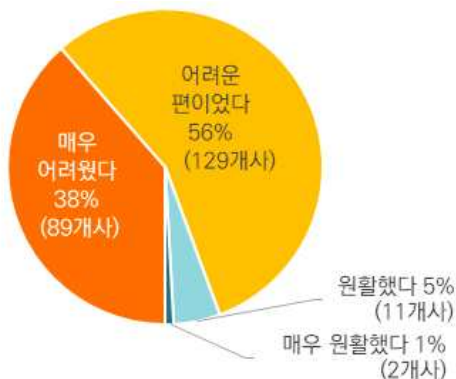
건설현장 기술인력 부족 실태와 영향

- 기업 94%가 인력 부족 응답... 공사비 증가와 품질 저하, 안전사고 우려 커져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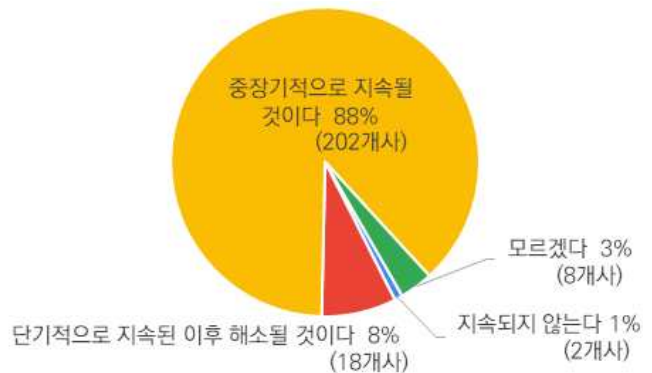
■ 건설현장 기술인력 부족, 공사비 증가에 영향

- 건설현장의 기술인력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인식에 따라, 대한건설협회와 한국건설산업 연구원은 종합건설사를 대상으로 건설현장의 기술인력 부족 실태를 조사함.
 - 대한건설협회는 지난 6월 20일부터 7월 3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총 231개 건설사가 응답함. 응답한 건설사 중 89%는 200위 이하의 중소건설사였기 때문에, 이번 실태조사의 결과는 대기업 및 중견건설사의 현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음.
- 최근 3년간 건설현장에서 기술인력 채용이 어려웠다고 응답한 건설사는 94%('어려운 편이었다' 56%, '매우 어려웠다' 38%)에 달할 정도로, 거의 모든 현장에서 기술인력 부족 문제를 겪고 있음(<그림 1> 참조).
 - 채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응답한 건설사는 6%에 불과함.
- 무엇보다 현재 겪고 있는 기술인력 부족이 중장기적으로 지속될 것으로 예상하는 기업이 전체의 88%를 차지함(<그림 2> 참조). 이러한 인식은 현장의 인력 부족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건설산업의 고질적인 문제로 남을 것임을 시사함.
 - 현장의 기술인력 부족이 단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응답은 8%로 나타났으며, 현재 기술인력 부족이 해소되고 있다는 응답은 1%에 불과하였음.

<그림 1> 최근 3년 현장 기술인력 채용 여건



<그림 2> 현장 기술인력 부족 시기 예상



● 이와 같은 현장의 기술인력 부족이 건설사업의 공사비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고 판단한 기업은 61%였으며, 또한, 기술인력 부족은 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우려 증가와 공기 지연에도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남(<그림 3> 참조).

- 건설현장은 기술인력이 부족한 상태로 운영되거나, 채용기준을 낮추어 인력을 고용하기도 함. 이러한 영향으로 응답 기업의 36%는 현장의 품질 저하 및 안전사고 우려가 커졌다고 응답함.
- 기술인력 부족이 공기 지연에 영향을 주었다고 응답한 기업도 32%였으며,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한 영향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은 6%에 불과함.

<그림 3> 현장 기술인력 부족이 건설사업에 미치는 영향¹⁾



■ 현장 기술인력 부족 원인으로 청년층의 진입 부족 지목

● 건설현장의 기술인력이 부족해지고 있는 원인으로서는 건설산업 진입 청년층의 부족(응답 기업의 80%)이 가장 큰 원인으로 지목됨(<그림 4> 참조).

- 정책·제도 변화에 따른 업무 증가(39%), 다른 기업 또는 다른 산업으로의 이직(32%)도 주요 원인으로 나타남.
- 건설산업으로 진입하는 청년층 부족은 건설현장의 근무여건 및 복지 부족, 낮은 임금수준 등의 원인에서 비롯되었지만, 여기에 국가 및 전산업 차원에서 당연한 고령화와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영향이 더해지며 나날이 심화되고 있음.

● 건설사에서 현장의 기술인력 채용이 어려워진 이유로는 근무여건 및 복지 부족, 임금수준 불만족, 현장의 과도한 업무량, 해당 직무의 비전 부족 등이 나타남(<그림 5> 참조).

- 현장의 위치에 따라 삶의 터전이 바뀌고 주말 근무와 이른 출근이 기본이 되는 현장 업무 특성상, 기술인력은 워라밸 만족도가 낮을 수밖에 없음.
- 또한, 기술인력 부족이 심화될수록 현장의 업무량이 증가하며, 가중된 현장 업무의 어려움이 임금으로 보상되지 못할 경우 소위 ‘탈건(脫建)’으로 지칭되는 다른 산업으로의 이직 사유가 됨.

1) 현장 기술인력 부족이 건설사업에 미친 영향에 대하여 중복응답이 가능하도록 조사하였기 때문에, 각 항목 응답 비중의 합은 100%를 넘음. 이하 <그림 4~7>의 조사도 중복응답이 가능하도록 조사되었음.

<그림 4> 현장 기술인력 공급 부족의 원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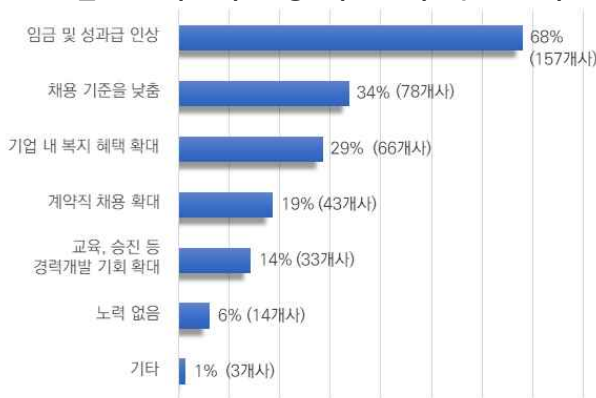
<그림 5> 현장 기술인력 채용이 어려운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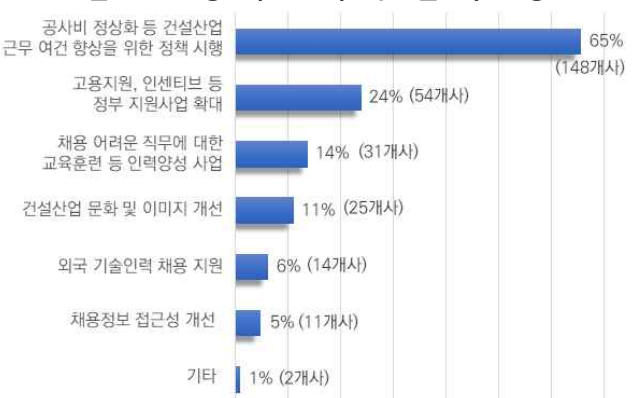
■ 건설사는 임금 및 성과급 인상으로 대응 중, 근본적인 해결 노력 필요

- 현장의 기술인력 부족이 심화되면서 건설사들은 임금 및 성과급 인상(68%)이나 채용 기준의 완화(34%)와 같은 방법으로 인력 부족을 해결하고자 함(<그림 6> 참조).
 - 또한, 기업 내 복지 혜택 확대(29%), 계약직 채용 확대(19%), 교육, 승진 등 경력개발 기회 확대(14%) 등의 방안도 사용하고 있음.
- 건설현장 기술인력의 부족은 고령사회로의 진입, 저성장의 고착화 등 국가 경제 및 산업의 근본 문제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해결을 위해서는 산업 전반의 노력이 필요함. 응답 기업들 역시 ‘공사비 정상화 등 건설산업 근무여건 향상을 위한 정책 시행(65%)’과 같은 산업 환경 개선을 위한 중장기적 관점의 방안을 중시하고 있음(<그림 7> 참조).

<그림 6> 기업의 현장 기술인력 확보 노력



<그림 7> 현장 기술인력 확보를 위한 방안



- 건설현장의 기능인력은 이미 외국인 노동자로 대체되었으며, 앞으로 기술인력도 외국인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결해나갈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건설산업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현장의 근무여건 향상과 적정 임금 제공 등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는 것이 필요함.

성유경(연구위원 · sungyk@cerik.re.kr)

2022년 ENR 225대 설계기업 매출 동향 분석

- 세계 설계기업 해외 매출, 전년 대비 8.9% 증가 -

■ ENR 225대 설계기업의 2022년 글로벌 매출, 전년 대비 234억 달러 증가한 2,009억 달러

- 2022년 세계설계기업의 국내와 해외를 합친 글로벌 매출 규모는 전년 대비 13.2%의 두 자릿수 성장률을 기록하며 7년 연속 상승세를 유지함.
 - 상승률로는 2011년(11.5%) 아래 가장 높은 수준일 뿐만 아니라 2007년에 1,004억 달러를 기록한 이후 15년 만에 글로벌 매출 규모가 2,000억 달러를 돌파함.

<그림 1> ENR 225대 설계기업 글로벌(국내+해외) 매출 및 성장률 추이



자료 : ENR(Engineering News Record).

- 설계기업의 국내 매출 규모는 1,273억 달러로 2021년(1,099억 달러) 대비 15.8%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 실적을 달성함.
- 2021년에 0.7% 증가에 그쳤던 해외 매출은 736억 달러로 전년 대비 8.9% 성장하며 2019년(723억 달러) 이후 3년 만에 700억 달러 대를 회복함.
- 하지만, 글로벌 매출에서 해외 매출의 비중은 36.6%로 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하며 감소세를 지속함. 결국, 225대 설계기업의 글로벌 매출 증가는 기업의 자국 설계시장 성장에 힘입은 결과임.

<그림 2> ENR 225대 설계기업 매출 및 성장률(좌)과 국내 및 해외 매출 추이(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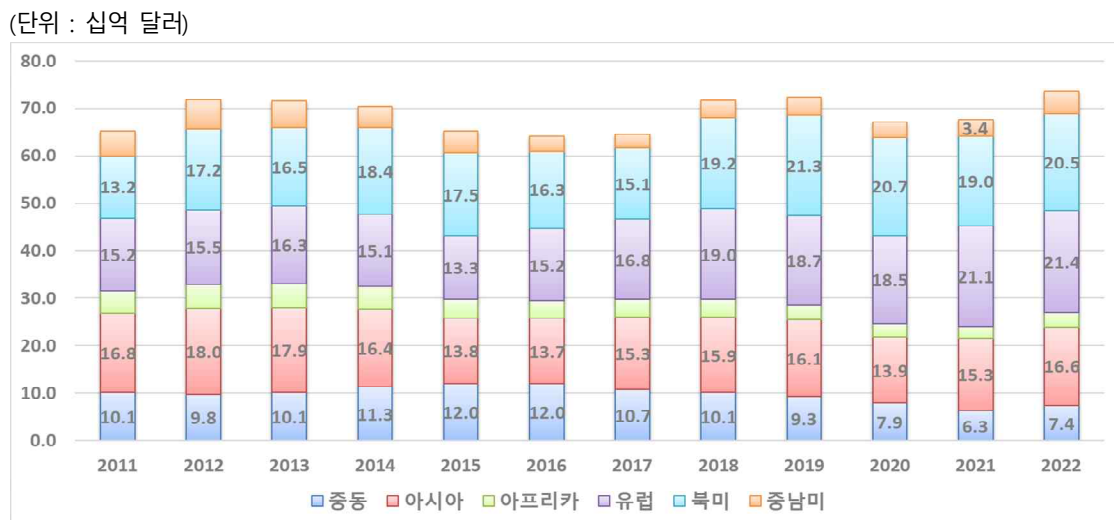


자료 : ENR(Engineering News Record).

■ 지역별로는 유럽이 214억 달러, 공중별로는 교통 부문이 200억 달러로 각각 1위 차지

- 지역별 해외 매출은 모든 지역에서 전년 대비 증가세를 기록함. 북미 지역의 경우 205억 달러로 전년과 비교해 8% 증가함. 아시아와 중동 지역도 각각 166억 달러와 74억 달러를 기록하며 전년 대비 13억 달러와 11억 달러 증가함.
- 중동 지역의 경우 2021년 63억 달러로 지난 2006년(61억 달러) 이후 가장 낮은 실적을 기록하며 5년 연속 감소세를 기록했지만, 2022년엔 74억 달러로 전년 대비 17% 증가하며 반등함.

<그림 3> ENR 225대 설계기업 지역별 해외 매출 추이



자료 : ENR(Engineering News Record).

- 모든 공종의 해외 매출 규모가 증가한 가운데, 교통 부문이 전년 187억 달러 대비 13억 달러 증가한 200억 달러로 역대 최고 매출을 기록함.

- 또한, 2021년 92억 달러로 100억 달러에도 미치지 못했던 석유화학 부문은 전년 대비 15억 달러 증가하며 107억 달러를 기록함. 전체 해외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14.5%로 전년과 비교해 0.9%p 상승함.

<그림 4> ENR 225대 설계기업 공종별 해외 매출 추이

(단위 : 십억 달러)



자료 : ENR(Engineering News Record).

- 기업 국적별 해외 매출 규모는 미국이 172억 달러(23.4%)로 작년에 이어 1위를 유지함. 이어 캐나다가 144억 달러(19.6%)로 2위를 기록했으며, 2021년 54억 달러로 매출점유율 순위 5위를 기록했던 영국이 62.4억 달러(8.5%)로 3위를 차지함.
 - 네덜란드가 60.2억 달러(8.2%), 호주가 58.1억 달러(7.9%), 중국이 45.2억 달러(6.2%)로 해외 매출 점유율 순위 4~6위를 차지함.
 - 우리나라는 전년과 동일하게 11개 기업이 225대 기업 순위에 포함되며 6.4억 달러(0.9%)의 해외 매출을 기록했지만, 점유율 순위는 11위로 한 단계 하락함.

구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9위	10위	11위
1~11위 기업	WSP GROUP	WORLEY	AECOM	ARCADIS	JACOBS	SNC-LAVALIN	STANTEC	WOOD	FLUOR	DAR GROUP	ARUP
우리나라 기업 순위	삼성ENG (50위)	도화 (69위)	삼우 (93위)	DL이앤씨 (103위)	KEPCO (113위)	건화 (144위)	한국종합기술 (145위)	유신 (148위)	희림 (172위)	수성 (189위)	SK에코플랜트 (213위)

■ 국내 매출 증가에 따른 설계기업의 글로벌 매출 성장은 위협요인이면서 기회요인

- 2016년 이후 상승세를 이어가는 225대 설계기업의 국내 매출은 우리 국내 기업에는 해외 시장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고부가가치 상품으로 평가되는 설계 부문에서의 경쟁력 강화가 시급함.
 - 중동과 아시아를 중심으로 하는 우리나라 건설기업의 해외 매출 규모와 비교해 설계 매출은 1~2억 달러 수준임. 때문에, 기존 시공 매출 창출 지역에서의 설계 경쟁력 강화와 더불어 북미, 유럽, 호주 등 선진 설계시장으로 진출 확대도 추진할 필요가 있음.

손태홍(연구위원 · thsohn@cerik.re.kr)

2022년 건설업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현황

- 핵심지표 공시 의무 확대 추세, 기업의 관심과 준수율 개선 노력 필요 -

■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현황, 자산규모 1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의무 공시

- 기업의 경영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도입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에 따라 2023년 기준 자산규모 1조 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해야 함.
 -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2017년 3월 한국거래소 자율공시로 최초 도입된 후, 2019년부터 자산규모 2조 원 이상, 2022년부터 자산규모 1조 원 이상, 2024년부터 자산규모 5,000억 원 이상, 2026년부터 전체 코스피 상장사로 공시 의무가 확대됨.
- 기업지배구조보고서는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현황을 포함해야 하며, 핵심지표는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3가지 분야의 15개 지표로 구성되어 있음(<표 1> 참조).
 -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는 주주 관련 4개 지표, 이사회 관련 6개 지표, 감사기구 관련 5개 지표로 이루어져 있음.

<표 1>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구분	핵심지표
주주	① 주주총회 4주 전에 소집공고 실시
	② 전자투표 실시
	③ 주주총회의 집중일 이외 개최
	④ 배당정책 및 배당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이사회	⑤ 최고경영자 승계정책(비상시 선임정책 포함) 마련 및 운영
	⑥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⑦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
	⑧ 집중투표제 채택
	⑨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익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⑩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감사기구	⑪ 내부감사기구에 대한 연 1회 이상 교육 제공
	⑫ 독립적인 내무감사부서(내부감사업무 지원 조직)의 설치
	⑬ 내무감사기구에 회계 또는 재무 전문가 존재 여부
	⑭ 내무감사기구가 분기별 1회 이상 경영진 참석 없이 외부감사인과 회의 개최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자료 : 한국거래소

■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 건설기업, 15개 핵심지표 중 평균 9.5개 준수

- 2022년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를 공시한 코스피 상장 건설기업은 총 15개임.
 - 이는 2022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한 전체 기업(금융업 제외) 333개 중 4.5%, 코스피 상장 건설기업 23개(2023년 8월 기준) 중 65.2%를 차지함.
- 2022년 건설기업의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63.1%로 전체 기업(333개)의 평균 준수율 62.4%보다 0.7%p 높은 수준임(<표 2> 참조).
 - 2022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 제출 건설기업은 15개 핵심지표 중 평균 9.5개를 준수하였으며, 전체 기업은 평균 9.3개의 핵심지표를 준수함.
- 건설기업의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감사기구 관련 지표에서 78.7%로 가장 높았으며, 주주 관련 지표에서 51.7%로 가장 낮았음.
 - 건설기업의 주주 관련 지표의 평균 준수율은 51.7%로 전체 평균(58.4%)보다 낮았지만, 이사회 관련 지표의 평균 준수율은 57.8%로 전체 평균(51.4%)보다 높았음. 감사기구 관련 지표의 평균 준수율은 78.7%로 전체 평균과 같았음.
- 항목별로 살펴보면, ‘⑥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⑩ 6년 초과 장기재직 사외이사 부존재’, ‘⑮ 경영 관련 중요정보에 내부감사기구가 접근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지 여부’ 항목에 대해 건설기업이 100%의 준수율을 보였으나, ‘⑧ 집중투표제 채택’ 항목을 준수한 건설기업은 한 곳도 없었음.
 - 전체 기업 평균 준수율에 비해 건설기업 평균 준수율이 높은 항목은 ‘⑥ 내부통제정책 마련 및 운영’, ‘⑨ 기업가치 훼손 또는 주주권의 침해에 책임이 있는 자의 임원 선임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 수립 여부’ 순이며, 전체 평균에 비해 건설기업 평균 준수율이 낮은 항목은 ‘④ 배당정책 및 배당 실시 계획을 연 1회 이상 주주에게 통지’, ‘② 전자투표 실시’ 순임.

<표 2> 2022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별 준수율

(단위 : %)

구분	주주				이사회						감사기구					평균
	①	②	③	④	⑤	⑥	⑦	⑧	⑨	⑩	⑪	⑫	⑬	⑭	⑮	
전체	58.4				51.4						78.7					62.4
	31.4	80.1	74.9	47.1	41.3	78.7	19.5	3.3	66.1	99.7	90.1	49.5	92.5	63.7	97.9	
건설업	51.7				57.8						78.7					63.1
	33.3	66.7	73.3	33.3	53.3	100	6.7	0	86.7	100	86.7	53.3	86.7	66.7	100	

주 : 항목별 핵심지표는 <표 1> 참조

■ ESG경영의 중요성 증대에 따라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 개선 노력 필요

- 건설기업의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은 전년 대비 개선되고 있는 추이이나, 주주 관련 항목과 같이 준수율이 낮은 항목에 대한 개선 노력이 필요함.
 - 2022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한 15개 건설기업 중 14개 기업이 2021년에도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를 공시했는데, 이들 기업의 평균 준수율은 2021년 58.1%에서 2022년 63.1%로 5.0%p 상승함. 참고로, 2022년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공시한 전체 기업 333개 중 2021년에도 보고서를 공시한 기업은 290개로, 290개 기업의 2021년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60.0%임.
 - 분석을 종합하면, 건설기업의 2022년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평균 준수율은 전체 기업의 평균 준수율에 비해 다소 높은 수준이며, 전년과 비교하여 나아지고 있으나, 항목별로 살펴봤을 때 전체 기업 평균 준수율에 비해 낮은 준수율을 보이는 주주 관련 항목 등의 개선이 필요함.
-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는 자산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인 유가증권 상장사라면 반드시 공시해야 하는 지표이며, 해당 기업의 기업지배구조 현황을 객관적으로 진단할 수 있는 정량적 지표로서 활용도가 높으므로 준수율을 높이기 위한 기업 차원에서의 관리가 필요함.
 - ESG 평가기관의 기업지배구조 평가 결과는 각각의 평가기관마다 평가 기준 및 항목이 다르고 평가 결과의 획득 및 활용에도 제약이 있으나,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가 있는 모든 기업에 대해 일괄적인 기준을 적용하여 산출되고 그 결과가 공시되는 객관적인 정량 지표이므로 활용도가 높음.
- ESG 경영의 중요도가 높아짐에 따라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도 점차 확대되고 있는 추이이므로,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 개선을 위한 기업의 관심과 노력이 요구됨.
 -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의무 확대에 따라 보고서 제출 기업 수는 2024년 406개 이상, 2026년 733개 이상으로 증가함(<표 3> 참조).
 - 현재 15개인 공시 의무 건설기업도 2024년 17개 이상, 2026년 23개 이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표 3>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단계적 의무화에 따른 제출 기업 수

구분	대상 (자산기준)	보고서 제출 기업 수 ¹⁾	보고서 제출 건설기업 수 ²⁾
'19~'21년	2조 원 이상	175	8
'22년	1조 원 이상	265 (+90 예상)	15
'24년	5,000억 원 이상	406 (+231 예상)	17
'26년	쏘코스피 상장회사	733 (+558 예상)	23

주 : 1) 금융회사, 투자회사 등 제외('20년 결산 기준).

2) '22년 결산 기준.

자료 : 금융위원회((2022.3.7) "물적분할 등 기업 소유구조 변경시 주주보호가 강화됩니다,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가이드라인 개정" 보도자료, 한국거래소 KIND.

이지혜(연구위원 · jihyelee@cerik.re.kr)